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의 서비스 개발과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Strategies of Servic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Libraries

한 윤 옥(Yoon-Ok Han)**
김 수 경(Soo-Kyoung Kim)***
조 미 아(Mi-Ah Cho)****

목 차

- | | |
|--------------------------------------|------------------------------------|
| 1. 서 론 | 4.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유형 및
운영 사례 |
| 2.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현황 | 5. 결론 및 제언 |
| 3.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추진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 | |

초 록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범국가적인 추진체계 하에서 도서관의 특색에 맞는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원리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운영 사례를 예시로 제시하여 향후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study aims at presenting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strategies of programs and servic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libraries. The study proposed the principles and directions for the multicultural services which fit into certain types of libraries. The study also stated that principles and directions of these services should be adopted under a national initiative framework. The study examined multicultural services in domestic libraries. The study analyzed them by patterns, and described service programs that were exemplary. The study intended to aid in finding the appropriate management strategies for multicultural services in Korean libraries in the future.

키워드: 다문화 가정, 다문화 도서관 서비스, 다문화 도서관 프로그램
Multicultural Families, Multicultural Services, Multicultural Library Program

* 본 연구는 2008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연구지원비를 받아 작성된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도서관프로그램을 중심으로”의 보고서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한윤옥·조미아·김수경. 2009.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1): 135-160의 후속 연구임.

**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ohan@kyonggi.ac.kr)

*** Post-Doctor, University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School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ksk1101@hotmail.com)

**** 성균관대학교 정보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miah100@naver.com)

논문접수일자: 2009년 5월 13일 최초심사일자: 2009년 5월 21일 게재확정일자: 2009년 6월 2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다문화 가정이란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말로서 학술적인 용어일 뿐 법률적인 용어나 정의는 아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국제결혼 가정이 있는데 이것은 국적이 다른 사람끼리 이룬 가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는 한 가정 내에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혼혈인 가족'과 그 2세를 가리키는 '혼혈인'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지니는 상징적 차별성이 있어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 2004년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가정 용어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써 '다문화 가정'이란 표현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이성연·최유 2006).

사실 우리 사회는 '단일 민족' 신화에 기반하여 정체성과 전통성을 구축하여 왔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도 국가 외부로부터 유입된 이주민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의 문제가 여러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사회가 된 지역에서의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multicultural services)는 모국을 떠나 민족적, 언어적, 문화적 소수자가 된 이민자들에게 자아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되는 도서

관 서비스를 의미한다.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 서비스 개발을 위한 지침인 IFLA/UNESCO 가이드라인에서는 민족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도서관은 이민자나 새로 이주한 사람들의 사회적 적응을 돕고 모국문화 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야 하며, 관련 집단과 협의하여 해당 집단 출신의 도서관 직원을 채용하거나 그들의 문화와 전통, 지식을 반영하는 장서를 구비하고 모국어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주민들의 문맹퇴치와 환경적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하여 교사, 부모, 기타 관련자들과 협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Philip Gill, 장혜란 역 2002). 실제로 도서관에서 다문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이민자에게 모국어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으며, 어린이에게 실시하는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는 스토리텔링, 콘서트, 연극, 전시와 같은 문화행사적 성격의 프로그램이 주로 제공되고 있다.

평생학습 기관의 하나인 도서관은 교육기회를 놓친 사람들과 소외계층들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증진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함으로써 교육의 사회적 통합성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김갑현 2007).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공공도서관에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문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교육 프로그램과 독서자료를 매개로 한 단순 프로그램 이외에는 활성화 되어있지 않아 평생학습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정

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통합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다문화서비스에서의 핵심적인 논제는 보편성과 다양성의 추구에 있다. 보편성은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공통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파악함으로써 인간과 그 문명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반면, 다양성이란 문화를 그 자체 내의 맥락에 맞게 좀 더 정확히 이해하려는 것으로서 인류 문화의 다양성의 인식과 개별 문화의 독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다문화사회가 형성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중시되어 오던 단일민족으로서의 가치관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서로 다른 사람과 문화를 보호하고 확장함으로써 국가사회의 귀중한 자원으로 이들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할 것인가에 따라 국가적인 발전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각기 다른 인종, 성, 언어, 계층 등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하며, 다양한 문화적 공동체로서 이주민과 내국인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생활하고 의사소통하는 지식과 태도,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은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추진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 원리를 제시하고 내국인 및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2)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국내·외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선행 연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 문헌연구, 도서관의 홈페이지 조사, 담당사서와의 인터뷰 및 도서관 직접 방문을 통한 면접조사 및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2.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현황

2.1 다문화가정의 규모 및 특성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은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새터민에 의해 형성된 가정을 말한다. 다문화가정의 범주를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한국의 다문화가정은 역사적으로 초기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꿔 미군 병사와의 결혼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도시에서는 전문여성들과 외국인과의 결혼이, 농촌에서는 농촌총각과 외국여성(주류는 중국동포)의 결혼으로 다문화가정이 형성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 후 9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 들어온 이주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의 결혼 그리고 북한

〈표 1〉 다문화가정의 범주

범 주	내 용
국제결혼 가정	한국인 남자 + 외국인 여자, 외국인 남자 + 한국인 여자
외국인근로자 가정	한국에서 결혼 혹은 본국에서 결혼 후 국내로 이주한 가족
새터민 가정	북한태생으로 한국입국, 한국인과 결혼 혹은 외국인과 결혼해 형성된 가족

출처: 다문화가족 백서(2007).

에서 탈출한 새터민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다문화가정을 형성하고 있다.

200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의 국제결혼은 38,491건으로 2006년의 39,690건보다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국내 전체 결혼의 11.1%를 차지하여 혼인자 100명 중 11명이 외국인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비율이 75.7%를 차지하며,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의 비율은 24.3%를 기록하고 있다. 여전히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의 비율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의 비율을 훨씬 웃돌고 있다. 특히 2007년 농어촌 종사자 7,930명 중 40%에 해당하는 3,172명이 외국여자와 국제결혼으로 가정을 이루고 있다(통계청 2008). 80년대는 종교단체(통일교)를 통해 주로 일본 여성이 입국했으나 90년대 초에는 한·중 수교 이후 중국동포와 중국한족의 결혼이주가 활발한데 이어 1990년대 중반 이후 필리핀, 태국, 몽고 등으로 국적이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국적이 다변화되는 경향이 있다.

북한 이탈주민이란 북한인이었으나 특정 목적을 가지고 북한지역을 벗어나 타국을 통해 망명, 난민신청을 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1953년 북한과의 휴전 이후 1989년까지 40년 가까이 되

록 607명의 북한 이탈주민이 발생하는데 그쳤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식량난 악화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1999년 100명, 2002년 1,000명을 넘어선 이래 2006년에는 2,000명을 초과하였다(통계청 2008).

전문기술인력, 비전문취업자, 연수취업자, 내향선원, 산업연수생이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는 2004년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그 이후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적용의 강화, 중소기업의 인력수요 감소 등으로 소폭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특정 송출국가에 한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실시됨에 따라 2005년 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된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의 2007년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 중 유학이나 방문 동거와 같은 근로자가 아닌 자를 제외하고 근로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는 2006년 9월 약 415,000명 규모이다(법무부 2007).

한국의 다문화가정은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나라의 다문화가정 양상과 매우 다르다. 즉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분단국가체제로 인한 긴장과 갈등으로 한국의 다문화 사회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복잡하다. 예로써 한국에 유입되는 외국국적자 중 최대다수는 중국국적을 가진 조선족이고, 이들과 함께 북한을

탈출한 새터민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조선족과 새터민은 오랜 분단국으로서의 경험 이후 한국에 있어서는 이들도 생존을 위해 고향을 떠나온 이주자이다. 조선족이나 새터민들은 우리와 같은 한민족이지만 정착과정에서 타민족이나 다를 바 없이 사회구조적 차이, 한국에 대한 문화적 차이, 생활 및 사고방식의 차이, 언어의 이질화, 한국생활에 대한 기초지식과 정보의 부재, 한국 주민들의 무관심과 편견으로 인해 사회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인은 저출산의 이유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해를 거듭할수록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의 외국인 유입으로 체류외국인은 증가하고 있다. 새터민도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식량난 악화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2,000명을 초과하였는데 2008년 3월 현재 외국인 거주자 합법체류자가 90만명을 육박하고 있는 반면, 불법체류자도 23만명에 이르러 총 외국인 체류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금까지 단일민족, 단일문화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었던 우리사회에서 100만명을 넘어선 이민족과의 문화적 접촉과 갈등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부부관계를 비롯한 가정문제, 사회적 가치관의 문제, 언어 및 문화적 차이 문제, 경제 및 의료보장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가정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언어와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서 오는 부부간의 갈등 및 자녀와의 관계가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은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율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국제결혼부부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은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차이에서 오는 인식의 차이 때문에 부모와 자식간에 서로를 이해하거나 자신을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문화적 배경이 다른 양 부모의 가치관과 생활태도로 인하여 그 자녀들이 많은 갈등과 혼돈을 겪는 문제도 심각하다.

또한 국제결혼 가정의 타국 출신 배우자 특히 여성은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민족주의적 경향과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에서 오는 이중의 차별을 겪게 된다. 또한 외국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한국인의 태도에 이중적인 잣대가 존재하는 문제도 있다. 지금까지 단일민족, 단일문화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었던 우리사회에서 이민족과의 문화적 접촉과 갈등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의 경제문제, 사회보장제도 문제, 강제출국에 따른 부부 이별문제, 낙태문제, 호적문제, 의료보험문제와 같은 사회제도적 문제들이 다문화가정의 문제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가족들과의 대화를 기피하게 만들며 당사자를 스스로 고립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결혼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출신의 부인들은 다른 나라 출신에 비해 한국어 실력이 많이 떨어지며, 그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언어문제는 아동의 언어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학교에 들어가서도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며 우리나라의 민족주의는 남성중심의 가

부장제와 함께 하기 때문에 국제결혼가정의 여성은 배제되고 결국 자녀 또한 어머니의 문화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김갑성 2006).

국제결혼 가정의 경제적 여건 또한 대단히 열악하다. 대부분의 가구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는 1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과반수가 심각한 빈곤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정보부족으로 실질적인 의료보장 체계에 들어가지 못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모성건강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보건복지부 2005).

2.2 다문화가정의 지원체제 및 교육현황

2.2.1 다문화가정의 지원체제

정부 각 부처 및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체제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방과 후 학교, 한글학교,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역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21개소를 전국에 설치하고, 국제결혼 가정이 한국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하의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관리기관으로서 종사자 교육, 지원방문, 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업무를 진행하며, 교육 지원사업으로는 한국어, 문화, 가족, 정보

화, 직업 영역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상담사업, 자녀보호 사업, 자조집단사업, 문화·정서사업, 홍보 및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림부와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사업으로 국제결혼 이주민 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2006년 5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실천사례 나눔대회, 국제이해교육포럼 운영, 교육지원방안 연구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중심의 교육지원체제를 준비, 시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한국문화 이해 체험활동 운영, 한국어 학습프로그램, 방과 후 학교 운영, 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축과 같은 것이 있다(김경아 2007; 여성가족부 2007).

2.2.2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현황

1997년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국제결혼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국적을 갖게 됨으로써 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 농어촌 지역의 국제결혼이 붐을 일기 시작하고 2000년에 들어서면서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하였는데 2008년 우리나라 초·중·고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수는 총 18,769명이다. 이중 초등학생이 15,804명(84.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학생이 2,205명(11.7%), 고등학생이 760명(4%)이다. 취학 증감율은 2007년도에 전년 대비 68.1%가 증가하여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08).

〈표 2〉 다문화가정 지원체제 및 기관

조치 사항	주관부처	협력기관
1.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① 결혼중개업체 탈법행위에 대한 단속	경찰청	법무부
②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를 위한 입법 추진	복지부	
③ 인신매매 등 중개행위에 대한 관리방안 검토	법무부	외교부, 여가부, 경찰청
④ 재외공관에 여성·인권담당관 배치 검토	법무부	여가부, 외교부
⑤ 결혼비자 발급 서류절차 표준화 및 사전 사증인터뷰 제도 도입 검토	법무부	외교부
⑥ 외교채널을 통한 국가 간 협력체제 구축	외교부	
⑦ 결혼 당사자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제공	여가부	복지부, 외교부
2.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①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신청 요건 강화	법무부	
② 혼인파탄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③ 이혼에 의한 간이귀화 신청 시 입증요건 완화		
④ 사실혼 부모 출생자녀 및 외국인 모에게 국적 또는 영주권 부여		
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제 구축 및 보호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3.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①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여가부	법무부, 행자부, 정통부, 지자체
②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 지원	여가부	문화부, 교육부, 농림부
4.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① 다문화교육추진체계 구축, 학교의 결혼이민자 자녀지원 기능 강화, 교사역량 강화, 집단 따돌림 예방	교육부	
② 복지 및 상담서비스 제공	복지부	교육부
5.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① 기초생활 보장 및 건강증진 지원	복지부	여가부
②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복지부	여가부, 농림부
③ 직업상담 및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진출 지원	노동부	
6.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① 정부정책 안내 및 일반국민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여가부, 법무부	
②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문화부	교육부, 행자부, 지자체
③ 공무원 교육 실시	인사위, 여가부, 법무부	전부처, 지자체
④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복지부, 행자부, 교육부, 농림부	
7. 추진체계 구축		
①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여가부	행자부, 교육부
②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여가부	지자체
③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구축 및 통역, 상담, 교육인력양성	여가부, 복지부	
④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및 중앙, 지방정부간 정책네트워크 구축	여가부	

출처: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지원』 (2006).

지역별 취학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3,878명(20.7%)으로 가장 많고, 서울 2,259명(12.3%), 전남 1,869명(10%), 경남 1,530명(8.2%)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부모의 국적별 비율은 일본이 41.0%로 가장 많고, 중국 22.3%, 필리핀 14.3%, 베트남 4.4%이며,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90.2%(16,937명)를 차지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부는 2010년경이 되면 국제결혼 가정의 취학자녀수가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교육부 2008).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자녀는 국내학교에 취학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이 학교 밖에 방치되어 있다. 2003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경우에도 학교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특히 저개발국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경우에는 거주지의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신분노출 우려와 같은 이유로 자녀를 정규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설동훈 2003). 2007년도 국내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인 630,627명으로 이중 취학연령대인 5세 이상 19세 이하는 25,488명이다. 이 숫자는 전체 외국인 인구의 4%에 해당되는 숫자이지만 이들 중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이외의 학생들, 즉 체류 혹은 신분상의 문제로 학교에 적을 두지 않은 학교 밖 취학 연령대 아동에 대한 정확한 규모 파악은 한계가 있다(교육부 2008). 본 연구의 대상자인 외국인근로자 자녀는 2008년 교육지역별로는 서울이 535명(38.2%), 경기지역이 429명(30.6%)으로 이 두 지역이 전국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북과 경남이 각각 그 뒤를 잇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인 부모의 국적별 비율은 몽골 26.2%, 일본

22.0%, 중국 20.3%순이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현재 1,402명으로 이들 중에 초등학생이 981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1월 6세에서 20세사이의 새터민 가정 출신의 청소년은 1,047명으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10.5%에 해당된다. 이들 중 2006년 우리나라 초·중·고에 재학 중인 아동 및 청소년은 522명으로 49.8%의 낮은 취학률을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취학률은 85.7%, 중학교 취학률은 49.1%, 고등학교 취학률은 6.6%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취학률은 떨어지고 있다. 새터민가정의 취학 학생들의 거주지 현황을 보면 다른 유형의 다문화 가정이 경기지역에 많은 것과는 달리 부산과 서울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즉 부산지역의 학교에 235명(32.5%)이 재학하고 있어 가장 많고, 다음이 서울지역에 231명(32.0%), 경기지역에 140명(19.4%), 이 재학하고 있다. 지방은 경상도 1.5%, 충청 5.1%, 전라도 1.7%로 나타났다(통일부정책지원과 2006).

중앙정부는 2006년에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2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주요과제를 설정,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부, 외교부, 여가부 등이 주관부처가 되어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류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가부에서는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 대책을, 교육부와 복지부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및 국제결혼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주로 책임지고 있다. 이밖에 문화

부, 여가부, 행자부 등에서는 내국인들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와 친화적 분위기 조성, 공무원이나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맡고 있다. 새터민 가정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1997년에 제정한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이 법에 의하여 새터민의 입국과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은 초기에는 새터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고 정착기반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사회적응 지원은 하나원을 통하여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법적 지위 확보 및 거주지 편입의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민간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간기관으로는 종교관계 시설, 이주노동자센터, 복지관 쉼터 등이 있다. 정부는 이들과 연계를 맺고, 전국을 6개 권역(서울권, 인천·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부산권, 울산권)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는 이 사업들을 총괄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 발간 및 교육을 비롯하여 이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각종 연계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새터민가정에 대한 지원은 국제결혼 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 가정과 달리 국가가 전 부문을 국가가 전담하고 있었고, 민간단체는 새터민 가정의 정착을 돕는 제한적이고 보조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민간단체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서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 30조에 의하여 그들의 사회정착 및 생활안정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밖의 단체들은 복지서비스, 선교 및 결연사업, 사회적응교육, 청소년 보호, 정착지원과 상담 등을 하고 있다(조상호 2003).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학교부적응의 문제 및 정체성과 집단따돌림의 문제이다.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들은 유아기에 한국어가 서투른 부모와의 관계에서 언어발달 지체를 겪게 되고,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의 혜택을 적게 받는 등의 이유로 독해와 어휘력, 쓰기, 작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학습부진과 학교부적응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한진상 2007). 또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대부분 정체성의 혼란과 집단따돌림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와 가정에서 경험하는 생활차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같은 이유로 성공적으로 성취되지 못했을 때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으며, 집단따돌림이 이것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조영달 2006).

결국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한국사회에서 잘 적응하기 위한 다문화 교육도 필요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문화이해교육도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저소득층인 다문화 가정의 경우, 특히 외국인 어머니를 둔 아이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추진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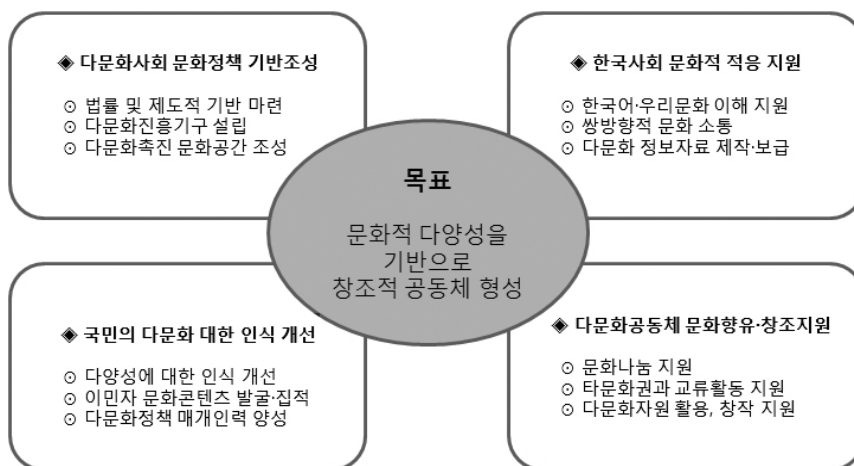
3.1 다문화 서비스 추진체계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11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다문화정책팀을 신설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창조적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대 목표 아래 12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12개의 추진과제는 다문화사회 문화정책 기반 조성, 한국사회 문화적 적응지원, 국민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개선, 다문화 공동체의 문화향유 및 창조역량 증진이라는 4가지 범주 아래 나누어져 추진되고 있는데 특기할 것은 문화다원주의에 입각한 다문화사회 문화지원법(가칭)을 제정하고, 다문화진흥기구를 설립하여 다문화 정책연구를 비롯하여 한국문화학습, 소수 문화보존과 전달 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정책추진과제의 내용은 다음 <그림 1>과 같다(문화관광

체육부 다문화정책팀 2008).

첫째, ‘다문화사회 문화정책 기반조성’으로 ① 문화다원주의에 입각한 다문화사회 문화지원법(가칭)을 제정하여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② 다문화 진흥기구를 설립하고, 다문화 정책연구를 비롯하여 한국문화 학습, 소수문화 보존과 전달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국립국어원, 지방문화원, 박물관, 도서관 등 각종 문화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활용한다. ③ 지역 유희공간을 이주민 문화전용공간으로 전환 지원하도록 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등 이주민의 한국문화체험 전용공간을 확충함으로써 다문화 촉진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둘째, ‘한국사회 문화적 적응지원’으로 ① 이주민들이 한국어와 우리문화를 이해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 지방문화원, 국어문화원 등 유관기관들 간의 협력체계를 형성하고, 전문화를 꾀하며 문화의 상호이해를 도모한다. ② 이주민 다문화축제, 지역생활문화축제 등을



<그림 1>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정책 추진과제

열고, 내국인과 새내기 이주민 간의 결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이주민과 내국인간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③ 다양한 언어로 가이드북 및 영상물을 제작 보급하고, 다문화 정보제공을 위한 포탈사이트를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사회, 문화, 관광, 체육 등에 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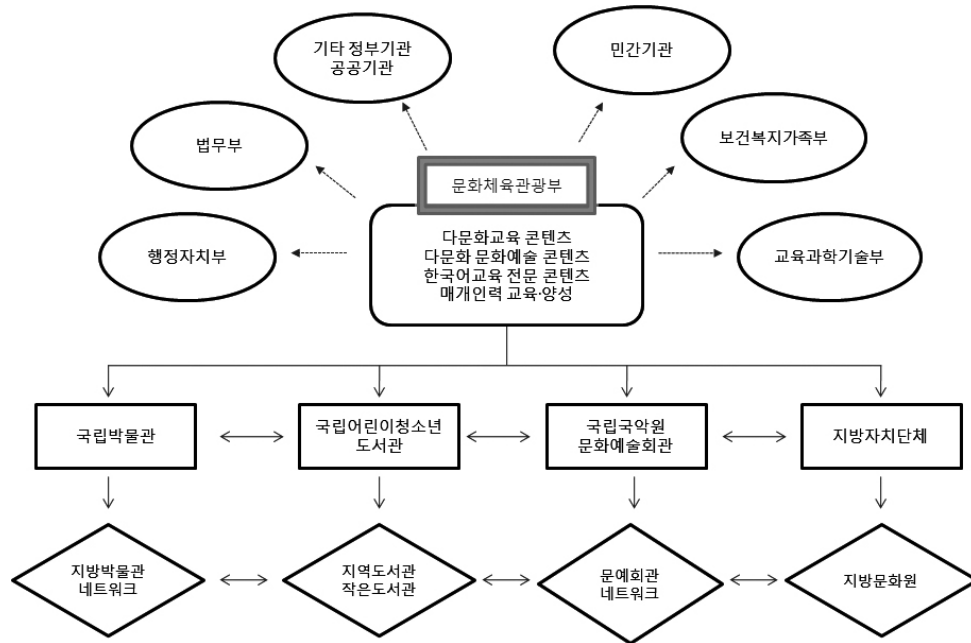
셋째, '국민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① 다양성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이주민에 대한 배타성을 해소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 포용을 주제로 하는 다큐, 공익광고 등을 제작·방영하고,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홍보자료를 개발·보급한다. ② 아시아 및 제3세계 국가 문학 작품 번역사업을 지원하고, 아시아 우수 영상물을 상영하는 등 서구문화 외에 다양한 소수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③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 등을 활용, 다문화 프로그램 기획자를 양성하고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공무원 및 각 문화시설 근무자에 대한 다문화교육 지원을 하고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주민 지원 매개인력에 대한 다문화 교육을 한다.

넷째, '다문화공동체의 문화향유 및 창조역량 증진'으로 ① 문화 바우처 수혜대상을 이주민으로 확대하고 도서관, 박물관, 국악원 등에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제공, 소외지역 이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시킨다. ② 다양한 국가의 전통문화 전시 공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예술가 교류지원을 하고 UNESCO 등과 다문화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③ 다문화 지원 아카이브 구축 및 실용화 가능 소재 발굴, 다문화 공동체의 문화예술 창조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창조적 역량을 강화시킨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시행하는 이와 같은 다문화정책 과제의 성격을 보면 결국 도서관에서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원리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도서관 조직체계는 대통령직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보정책기획단이 있어 위원회와 긴밀한 관계 아래 도서관 정보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그러므로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문화관광부 다문화지원팀의 협력을 얻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다문화가정 도서관프로그램 지원센터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각 지구별 공공도서관에서 다문화가정 도서관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하고 인력양성을 하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맡는 것이다. 지역의 공공도서관들은 해당 지역의 문화원이나 문예회관, 박물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한다.

도서관의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에 따라서는 작은도서관이 함께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작은도서관은 접근성이 좋은 주민사랑방적 도서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 가정 이 많은 곳 - 인천, 부천, 성남, 안산 - 과 경제환경이 열악한 농어산촌에서는 작은도서관에서 다문화서비스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지역도서관에서 순회문고를 운영할 수도 있는데 이상의 개념을 도표화하면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나타난다.

한 역사학자는 미국의 문화다원주의를 다인종 다문화를 다채롭고 다양하게 담아내는 샐러드 접시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면서



〈그림 2〉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 정책

이민자들로 잡다하게 구성된 미국은 샐러드 접시밖에 되지 못하지만, 우리 한국은 역사적으로 다른 문화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샐러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재료를 하나로 섞어서 비빔밥이라는 훌륭한 음식문화를 창조해 냈듯이 한국적인 비빔밥 다문화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김기봉 2007). 게리 베커 교수의 말¹⁾처럼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소수민이나 다른 나라의 문화가 각자의 독특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우리나라 문화와 어울려 어느 나라에서도 만들어내지 못한 비빔밥 다문화사회를 훌륭하게 창조해내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며, 도서관이 그 한 몫을 충분히 담당해 낼 수 있다.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multicultural services)는 모국을 떠나 민족적, 언어적, 문화적 소수자가 된 이민자들에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사회와 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다문화 서비스는 민족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서비스 개발을 위한 지침인 IFLA/UNESCO 가이드라인에서도 도서관은 이민자나 새로 이주한 사람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한편 그들이 모국문화

1) 2008년 9월에 한국을 찾은 게리 베커교수는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것을 지적하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교육책에 큰 기대를 걸 수는 없다고 하면서 한국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이민을 받아들일 것을 적극 권하였다. 조선일보 2008. 9. 13-14일 C1, C5쪽(박우규 SK경영경제연구소 소장과 김희섭 조선일보 산업부 기자가 워커히л 중식당에서 게리 베커 교수와 인터뷰한 기사) 참고.

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것을 권하고 있다.

사실 도서관에서의 다문화 서비스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시민단체에서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보다 훨씬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도서관에서 다문화서비스를 해야만 하는 이 유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표 3>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는 타기관보다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는데 이와 같은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가와 지방, 각 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협력을 맺어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3> 다문화 서비스기관으로서 도서관의 특성

<p>(1) 국가 혹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출입국에 관련된 법적 문제를 비롯하여 정착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도적 차원의 문제 등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다. 이것은 이주민이 일단 입국하여 정착하고,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피부에 닿지 않는 먼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에게 정부기관은 더욱 기피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p> <p>(2) 보통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가까운 곳부터 찾아가게 된다. 이것은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는 관보다는 민이 더 가깝고, 민감한 사항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p> <p>(3) 특히 익명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불법체류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도움은 관보다는 시민단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때로는 시민단체도 감사 등의 이유로 이들의 익명성을 절대적으로 보장 못할 수도 있다.</p> <p>(4)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 저개발국에서 오는 결혼이민자들을 비롯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학력이 높은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등의 열악한 환경과 땀, 음료 등의 제공과 함께 이루어지는 센터의 시혜적인 자세는 이들의 자존감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다.</p> <p>(5)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조건은 열악하기 때문에 맞벌이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편안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많지 않다.</p> <p>(6) 도서관은 특정인을 위한 장소가 아니고, 만인에게 공평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관이다. 더욱이 도서관은 이주민들의 모국어로 된 장서나 비도서자료를 구비해 놓음으로써 그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으며, 이주민 당사자와 자녀들을 위한 교육적이면서도 문화적인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한 도서관의 서비스는 땀 등을 주는 것과는 다른 지적 서비스로서 교육수준이 높은 이들의 자존감을 채워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서비스가 그러하듯 자발적 선택이라는 만족감을 줄 수 있다.</p> <p>(7) 이러한 도서관의 이점을 살리기 위하여 도서관에서는 다문화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할 때 정부기관이나 시민단체 등과는 다른 익명성과 편안함, 자존감, 접근성, 이용의 편의성 등을 제공해 주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로서 그들에 대한 도서관 회원증의 문제, 대출과 반납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우편대출이나 단체대출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p> <p>(8) 불법체류자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는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지만 이들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의 당위성을 인정한다면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의 장애를 극복하도록 도서관 관계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p>
--

3.2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원리와 방향

앞 절에서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지원체제 및 자녀교육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원리와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먼저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보편성을 추구해야 한다. 다문화사회에서의 보편성은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공통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파악함으로써 인간과 그 문명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는 인류문명의 공통성 속에서 각기 다르면서 같을 수 있는 보편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 2) 다양성을 추구한다. 다양성이란 문화를 그 자체 내의 맥락에 맞게 좀 더 정확히 이해하려는 것으로서 인류 문화의 다양성의 인식과 개별 문화의 독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는 서로의 문화가 다름을 인정해줄 수 있는 다양성이 추구될 수 있어야 한다.
- 3) 익명성을 보장한다. 불법체류자 이외에도 이주민은 그들의 존재를 숨기고 싶어 하는 경우²⁾가 종종 있다.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익명성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참고로 2008년 3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 체류 외국인수는 총 1,118,495명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합법체류자는 887,372명이고 불법체류자는 231,123명으로 20.7%에 달한다(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08).
- 4) 다문화가정의 자존감을 살린다. 저개발국에서 온 이민자들은 그들 본국에서의 경력이나 학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학력이 높은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은 그들의 자존감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
- 5) 평생교육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은 도

<표 4>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원리 및 프로그램 개발방향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원리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방향
1) 보편성을 추구한다. 2) 다양성을 추구한다. 3) 익명성을 보장한다. 4) 다문화가정의 자존감을 살린다. 5) 평생교육 차원에서 개발한다. 6) 친밀감 형성과 순응성을 높인다. 7) 도서관의 접근성을 높인다.	1)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우선 개발한다. 2) 주로 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3) 도서관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4) 체계적인 개발과정에 따라야 한다.

2) 불법체류자 이외에도 새터민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탈북자 자녀라는 것을 숨기다가 말씨가 달라 밝혀지게 되고,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

서관이 평생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평생 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 6) 친밀감 형성과 순응성을 높인다.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은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하며, 내국인들과 동화될 수 있도록 순응성이 높아야 한다.
- 7) 도서관의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에 가깝게 존재할 수 있는 지역의 공공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상과 같은 도서관에서의 다문화 서비스 개발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도서관에서의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유형으로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새터민가정을 포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정이나 새터민 가정은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도서관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국제결혼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정을 주 대상으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며, 프로그램 개발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1)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국제결혼가정을 위해 현재 개발 중인 프로그램은 주로 2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국제결혼 이민자교사양성 프로그램 등이 있다. 국제결혼이민자가 급증하

면서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및 교사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은 일반 가족과 다르게 가족 내에서부터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와 동시에 2세를 낳게 되면 2세는 2가지 언어를 동시에 학습해야 되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 이런 언어적, 문화적 이중 장벽을 넘기 위해 국제결혼가정 결혼이민자와 2세들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2)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은 주로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한다. 교육인적 자원부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그 부모를 위해 초·중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다문화교육지원 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유아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다문화지원 기관 어디에도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의 주 대상은 초등학교에 입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둔다.
- 3)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은 도서관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도서관의 서비스 프로그램이라 함은 도서관의 시설, 자료, 인력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는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은 이러한 도서관의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개발되기 보다는 다른 다문화지원기관과 별반 차별 없는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여가생활 등의 프로그램 중심

이며, 프로그램 장소도 도서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전문적인 강사 확보의 미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들이 열의는 있으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며, 다문화 관련 장서의 체계적인 개발과 그에 따른 자료정리 및 목록시스템의 부재, 이로 인한 정보 및 자료 서비스 또한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다. 따라서 도서관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즉 지역별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악을 비롯하여 그들이 쓰는 언어와 관련된 장서개발과 이중 언어 콘텐츠 개발, 이들의 도서관 접근성 개선 및 서비스 포인트 개발 등 그들의 이용 행태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한다.

도서관은 이주 초기 이후 한국사회에 적응해서 정주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본 기술을 교육하기 위하여 책을 매개로 한 소통과 독서 및 문해교육, 문화이해 등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타 다문화가정 지원기관의 프로그램과는 차별화 시킬 필요가 있다.

- 4)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개발 과정에 따라야 한다. 다문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는 각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 자

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편, 단위 도서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서비스는 지역 도서관이 협력하여 서비스를 창출해야 하며, 목록시스템이나 다문화장서개발 관련 콘텐츠 개발은 중앙 단위 도서관이 주도적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할 문제이다. 다문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사회의 정책과 시스템에 따라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에 관해 국가·지역·단위 도서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위해 중장기적인 도서관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현황에서 보듯이 체계적인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한윤옥 외 2009). 그러나 다문화사회의 오랜 전통을 가진 캐나다의 경우는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개발된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래밍 가이드라인을 1989년에 이미 캐나다도서관협회(Canadian Library Association)에서 제안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프로그래밍 과정에 따라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때 참고할만하다.³⁾

캐나다도서관협회에서 제시한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래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도서관 및 지역별 도서관에서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다음 <표 5>와 같은 스텝에 따라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⁴⁾

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윤옥(2008),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도서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159-164 참조.

4) 이해를 돕기 위해 스텝메뉴얼 과정에 근접하게 다문화 서비스를 개발하여 실시한 경기도 가평군립도서관의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지면상 본 연구에서는 생략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게서, 166-170 참조.

〈표 5〉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스텝 매뉴얼

(1) 다문화서비스의 목적
(2) 지역조사
(3)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도서관 자원 개발
1) 자료
2) 목록
3) 참고 및 독자자문 서비스
4) 프로그램
① 연구(research): 지역사회와 협의하면서 평가를 구한다.
② 계획하기(planning)
③ 조직하기(organization)
④ 실행하기(implementation)
⑤ 평가하기(evaluation)
⑥ 사후점검(follow-up)
5) 직원
6) 지역사회 활동

4.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유형 및 운영 사례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 서비스 운영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운영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4.1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유형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한국 생활 적응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남편 및 시집 가족들과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한윤옥 외 2009). 이러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다

른 다문화가정지원기관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기존 도서관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는 ‘책’을 매개로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과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 다른 다문화가정지원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등을 앞으로 도서관에서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의 자녀 육아와 교육에 중점을 두며, 그 외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동화되며, 아울러 그들 고유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이 존중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다문화사회에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혼란을 줄이고, 다문화 공존의 통합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내국인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및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앞서 이들 프로그램들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서의 장서개발이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을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즉, 자료 서비스, 유아·교육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 연계·혼합 프로그램 및 내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4.2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유형별 운영 사례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운영사례와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위의 <표 6>에서 제시된 다섯 가지 유형에 부합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지만, 내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다문화이

해교육이나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아직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면 관계상 유형별 다문화 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이를 운영하는 도서관 프로그램만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⁵⁾

4.2.1 다문화가정을 위한 자료 서비스

1) 다문화가정을 위한 장서개발 기준과 목록
다문화사회에서 도서관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의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더불어 이주민의 정체성 유지, 다시 돌아갈 경우 모국정착 준비에 필요한 모국사회 그리고 모국문화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공공도서관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장서개발 기준이 정립되어있지 않다. 지역에

<표 6>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유형

유형	내용	운영 사례 도서관
자료 서비스	도서관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기본이 되는 장서개발과 콘텐츠 구축	안산 다문화작은도서관, 다문화 모두 어린이도서관, 부산아시아공동체도서관, 안산관산도서관의 다문화자료실, 광양시립중앙도서관의 외국어자료코너, 제주도교육청의 프로그램 및 책자 개발 등
유아 및 교육 프로그램	책 매개 유아프로그램(이야기 들려주기, 동화구연 등), 문해교육(한국어교육, 이중언어교육 등), 독서교육관련	청주시립도서관의 도서관기반 책을 매개로한 사회적 유아, 경남김해도서관의 다문화동화구연, 남양주진건도서관의 한글반, 파주도서관의 다문화가정 한글 및 우리문화 체험교실, 광양시립도서관의 한글교실, 대구두류도서관의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도우미, 행신어린이도서관의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자녀독서교실, 인천중앙도서관의 영어스쿨, 성남시중앙도서관의 하나되는 다문화교육, 삼척평생교육정보관의 한글교육 등
문화 및 체험 프로그램	한국 전통문화, 생활방식에 관한 이해 및 체험 행사 등	전남남평도서관의 원어민과 함께 하는 외국문화체험, 남양주진건도서관의 옛이야기를 통한 우리문화 체험반, 삼척평생정보관의 다문화가정 여성 한국바로알기, 부산금정도서관의 어린이다문화체험, 안산관산도서관의 다문화프로그램, 천안시립아우내도서관의 단계별 다문화가정 독서문화프로그램, 광양시립중앙도서관의 외국인 도서관 방문의 날, 전남남평도서관의 신생아모빌 만들어 주기 등
연계 및 혼합 프로그램	다문화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프로그램	청주시립도서관의 세계로 가는 도서관, 대구서부도서관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북스타트와 책이랑 놀아요, 경기도가평도서관의 사랑의 한올타리 등
내국인 프로그램	책과 만나는 세계문화, 다문화이해교육, 독서치료 등	부평기적도서관의 그림책으로 세계친구와 만나요, 통합독서토론논술을 통한 다문화이해교육, 독서치료 등

5)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윤옥(2008), 상계서, 170-228 참조.

〈표 7〉 다문화가정을 위한 장서개발 기준

(1)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족한 한국어 및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2) 부모의 모국의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 및 다중언어로 된 장서를 개발해야 한다. 이것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어머니의 모국어와 제2언어인 영어로 된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타문화 이해 및 존중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4) 성역할, 인종적, 문화적 배경, 특별한 요구와 능력, 다양한 직업의 범위를 반영해야 한다. (5)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특성을 조사하여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운다.

따라 요구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국가들은 도서생산량이나 유통이 열악하여 자료입수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장서개발 기준을 〈표 7〉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장서개발은 장서를 이용하는 이용자집단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그 목표가 있으므로 장서를 이용하는 이용자 집단의 특성 및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다양한 이주민이 있을 경우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 장서의 구성 및 특성에 반영시켜야 한다. 안산 다문화 작은 도서관과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 '모두'의 경우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에 따라 혹은 모단체에 공부하러 오는 외국인 이용자에 따라 외국서적을 선정하여 갖추고 있는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실정과 현실에 맞는 다문화자료의 개발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요망된다.

2) 다문화자료의 수서와 콘텐츠 개발

최근 국내 도서관에서도 급증하는 이주민을 위한 다문화서비스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귀환 이주노동자나 현지의 선교사 혹은 활동가를 통해 어렵게 주요 이주민 국가의 자료를 입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이 나타나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

에 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의 대부분은 이주민 언어 자료보다는 문화 프로그램이나 국내자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계가 있다.

유럽과 북미지역 도서관의 다문화관련 자료 입수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이주민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공공도서관과 민간도서관 같은 개별도서관들이 기존의 비체계적인 다문화자료 입수방법에서 벗어나 국내 대행사, 인터넷 서점, 국제도서관, 도서구입 출장여행, 개별접촉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다문화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때 자료의 선정, 주문, 검수, 클레임과 같은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언어문제를 도와줄 국내거주 이주민 또는 아시아권 언어 전공자, 도서관 수요자이자 든든한 후원자가 될 이주민 커뮤니티, 자료입수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정부기관, 기업, 비정부단체,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이나 도서관 관련 전문직 단체를 기반으로 한 자료입수에 대한 조직적 대응방안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같은 기관에서 국내 공공도서관을 위한 자료선정 목록작성과

콘텐츠 개발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다문화관련 자료가 현지에서의 자료구입보다는 국내에서 개발된 혹은 번역된 자료위주라는 점은 이주민들의 모국어와 문화계승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라고 볼 때 어린이를 위한 현지자료 구입 혹은 그와 같은 자료의 내용을 담은 콘텐츠개발과 같은 문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예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면서 콘텐츠 구축의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즉 우리나라에 많은 이주민의 국적을 조사하여 그에 따라 그 나라 언어로 된 전래동화부터 입수하여 인쇄본은 기본으로 장서에 포함시키고, 인쇄본을 오디오북과 비디오북으로 개발하고 이것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이용자들에게 이용시키는 것이다. 이때 전래동화는 현지언어, 한국어, 영어 등의 언어로 낭독되도록 함은 물론이다. 창작동화보다 전래동화를 우선 개발대상으로 삼는 것은 유아가 대상이 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전래동화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전래동화는 옛이야기와 같은 것으로서 그 나라의 민속성이 가장 많이 담긴 것이다. 세계 각지의 원시인들은 그들이 겪은 이상한 사건이나 야수에 관한 이야기를 옛날이야기, 민담, 신화, 전설 등 여러 형태로 만들어 후세에 전달하려고 하였으며 수집가들이 이것들을 수집하여 기록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입에서 입으로 오랜 세월이 걸쳐 전해 내려오으로써 이른바 각 지역의 민속문학(folk literature)이 형성된 것이다. 처음에 그들의 일부는 로맨틱하기도 하지만 조잡스럽거나 혹은 유머러스한 이야기로 성인의 입

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오다가 어린이들을 위한 전래동화로 발전되기에 이른다. 독일의 메르헨(märchen), 영국의 fairy tales, 북유럽의 에반튀레(eventyre)가 그것이며, 이들을 원전으로 하여 쓴 창작동화도 있다. 따라서 각국의 전래동화는 특히 그 지역의 민족성과 삶, 풍습, 가치관 등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한윤옥 2008).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을 위한 콘텐츠개발의 예로 안산 관산도서관에서 구입한 다문화 원서 중 어린이를 위한 동화는 우리나라 이주민들의 상위 7개국(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러시아, 몽골)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국내의 다문화 자료서비스 프로그램으로는 안산 관산 도서관의 '다문화자료실' 운영과 광양시립중앙도서관의 '외국어 자료코너 운영 사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프로그램 및 책자 개발 사례'를 들 수 있다.

4.2.2 육아·교육 프로그램

1) 육아 프로그램

동남아시아 여성과의 결혼이 급격히 증가한 1999년 이후 태어난 다문화가정의 자녀 대부분이 7세 미만이므로 향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 자녀교육 특히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의 육아와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들 대상의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는 출발한다. 아울러 이들은 결혼한 지 5년 내외로 아직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육아 부담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생활문화 속에서 아

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소통의 도구는 도서관의 장서 중 그림책과 놀이가 중심이 된다. 이야기 그림책은 그림이 가지는 국제적·다문화적 의미체계와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유아 프로그램에서 매체로서 이야기 그림책은 아주 적절하다.

육아 경험이 있는 이 프로그램의 강사 혹은 보조강사들은 이들에게 육아 경험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멘토로서 역할 또한 할 수 있어 결혼이주여성들의 육아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지지자를 갖게 되는 중요한 타인들을 만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기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 프로그램의 기반 위에 다문화가정에 특성을 고려한 부가적인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미 검증된 프로그램이므로 질적인 면에서도 우수하며 프로그램 준비와 진행에 있어서 다소 부담을 덜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적용 사례로는 청주기적의 도서관에서 실행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기반의 책을 매개로 한 사회적 육아', 경남 김해도서관의 '다문화 동화구연'이 그것이다.

2) 교육·문해 프로그램

새로운 문해교육 개념은 단순한 읽기, 쓰기의 기술 습득이 아니라 개인이 속해 사는 사회 안에서 문화적 이해를 하고 또한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적응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의사소통능력(읽고, 쓰기, 셈하기)을 키우는 일이다.

국제결혼의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인하여 이중언어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이 증가

되는 추세이다. 이중언어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 한쪽이나 양 부모가 정식교육을 통하여 한국어를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부모의 의사소통문제는 아동의 언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언어상호작용에 있어서 가정의 충분한 모국어 습득 환경은 아동의 언어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중언어 환경의 아동들은 모계의 언어와 부계의 언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면 이러한 경우 이중언어 환경의 아동들은 언어 혼재를 겪게 된다. 특히, 결혼이민자 여성은 우리나라 글자를 읽고 쓰고 이해하는 문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및 자녀교육에 대한 애로점이 많다. 여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적용사례로는 남양주 진건도서관의 '한글반', 파주시도서관의 '다문화가정 한글 및 우리문화체험교실', 광양시립중앙도서관의 '한글교실 프로그램(엄마+어린이 프로그램)'과 대구 두류도서관의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 도우미' 운영 사례이다. 또한 몇몇 도서관에서는 컴퓨터를 통한 한글교육 및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하는 정보화 문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즉 행신어린이도서관의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자녀독서지도 교실', 인천중앙도서관의 '영어스쿨', 성남시 중원도서관의 '하나되는 다문화교육'과 삼척평생교육정보관의 '한글교육'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4.2.3 문화·체험 프로그램

다문화교육은 모든 사회적 계층, 인종, 성별, 그리고 문화적 집단들이 학습을 위해 균등한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한 일종의 개혁운동이다.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받아들이며 보다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하

고, 자신의 문화 뿐 아니라 타문화의 문화적 배경이나 생활방식도 수용하고 존경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족, 이웃 나아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외국인에게 우리 문화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혜택을 제공하며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의 기반 조성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도서관이 지역사회 문화공간으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적용사례는 전남 남평도서관의 '원어민과 함께 하는 외국 문화체험' 프로그램, 남양주 진건도서관의 '옛이야기를 통한 우리문화 체험반', 삼척평생교육정보관의 '다문화 가정 여성 - 한국 바로알기', 금정도서관의 내국인 대상 '어린이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안산 관산도서관의 '다문화 프로그램', 천안시립 아우내도서관의 '단계별 다문화가정 독서문화 프로그램', 광양시립중앙도서관의 '외국인 도서관 방문의 날'과 전남 남평도서관의 친화 프로그램 '신생아 모빌 만들어주기' 등의 프로그램이다.

4.2.4 연계·혼합 프로그램

이주자를 위한 사회통합정책은 현재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7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복지단체 등 민간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부처간 긴밀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회통합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조기 정착 및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통합프로그램의 개발 역시 시급한 실정이다.

다문화 서비스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지원 및 협력을 요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현재 초기의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도서관의 고유한 자원을 개발하는 것과 아울러 지역의 전문 자원과 연대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지역 공동체 문화자원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는 청주기적의 도서관의 '세계로 가는 도서관' 프로그램이나 대구 서부시립도서관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북스타트'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책이랑 놀아요' 프로그램의 경우는 무엇보다 기존 도서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던 프로그램에 힘입어 다문화 서비스를 계획할 때 이것이 도서관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다문화 자원도 개발하고 지역의 타 기관과의 연대와 협력 또한 이끌어 내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기도 가평도서관의 '사랑의 한올타리' 프로그램의 경우는 지역의 타 기관과 연계를 통해 결혼여성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의 내국인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가족간의 소통과 통합을 꾀하였다.

4.2.5 내국인을 위한 프로그램

다문화인구의 증가는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한다든지 문화권 보장의 차원에서 다민족 고유문화 보존 욕구를 존중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맞고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인구구조를 변화시키는 물리적 차원만이 아니라 특정 인구집단을 통해 전파되는 문화적 가치나 삶의 양식에 대해 토착민 집단이 어떻게 관계맺음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인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관한 연구는 다문화적 관용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차원이 아닌 아직까지는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일반적 선의의 표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한다(황정미 2007). 양애경·이선주(2007)의 연구에 의하면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이주결혼 여성에 대한 시급한 대책에 있어서도 언어교육 다음으로 남편 및 가족교육을 중요한 측면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06년 실시된 '지구촌 딸들의 문화사랑방 프로그램'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프로그램 진행시 가장 관건이 되었던 것은 지역 내의 결혼이주여성을 어떻게 모집할 것이냐 였으며 프로그램에 참가할 여성들을 모집하는 과정에 투입된 노력이 전체과정 중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한다. 이는 단지 결혼이주여성들만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 과정이 반드시 따라야 했기 때문이다. 한 지방문화원의 현장 방문평가에 보면 "집밖에도 나오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몇 번이나 버스를 갈아타고 나오는 발전을 보이고, 부적응과 스트레스로 인해 거의 말을 하지 않던 사람이 즐겁게 이야기하고 참여하는 등 그 변화가 눈에 크게 보일만큼 프로그램의 효과가 좋았고, 무엇보다 여성 한 사람이 아닌 가능한 가족 모두를 참여시켜 교육시킴으로서 실질적

변화가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무엇보다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의 내국인 대상은 결혼이주여성들의 남편이나 그 가족이 우선 대상이며, 또한 그 2세들이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에 취학했을 때 내국인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것은 흔한 일이다. 따라서 취학 내국인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의 사례로 부평 기적의 도서관의 '그림책으로 세계친구와 만나요'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중학생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통합 독서토론논술'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는 김민정(2007)의 연구에서 소개된 독서를 통한 다문화이해교육이다. 이는 성인들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다문화이해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다름과 차별에서 오는 심리정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원발 오 른발의 아름다운 성장'이라는 프로그램명으로 본 연구팀에서 개발하였다. 이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겪는 정서적 문제와 정체성 혼란에 대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과 내국인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5. 결론 및 제언

5.1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는 반만년 넘는 역사와 단일민족으

로서의 자부심이 다른 문화권에 비해 남다르지만 다문화는 이제 전 세계적인 문화양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각각 출발점과 처해진 현실은 다르지만 다문화는 전 지구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문화 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의 정착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UNESCO와 OECD에서도 우리나라를 다문화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다른 인종, 민족, 언어, 문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다문화적인 관점이 없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과 문화공존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다문화에 대한 여러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7년 11월에 다문화정책팀을 신설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창조적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비전 아래 12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으며, 다문화사회 문화정책 기반조성을 위하여 문화다원주의에 입각한 다문화사회 문화지원법(가칭)을 제정하여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다문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비록 현재까지는 우리나라가 배제주의에 속해있다고 하여도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이 캐나다나 미국과 같은 다원주의에 입각한 방향으로 나갈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를 개발할 때에도 다원주의에 속한 국가들의 도서관 서비스를 모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유형별 프로그램 적용

사례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유형을 자료서비스, 육아 및 교육프로그램, 문화 및 체험프로그램, 연계 및 혼합 프로그램, 내국인 프로그램의 다섯 가지로 크게 구분하였다. 자료서비스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장서개발 기준과 이에 근거한 다문화도서목록을 제시하였으며, 콘텐츠 구축을 위하여 도서관 다문화자료의 입수문제를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에 많은 이주민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각국의 전래동화나 유아를 위한 동화 등을 다국어로 번역한 여러 형태의 자료개발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들 자료를 입수하기 위하여 각국의 도서관협회나 국립도서관의 협조를 얻도록 제안하였다. 이들 프로그램의 사례로는 안산 관산도서관의 ‘다문화자료실’ 운영, 광양시립중앙도서관의 ‘외국어자료 코너’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프로그램 및 책자개발’ 등이 있다.

둘째, 부모 특히 어머니의 언어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학습문제, 이주민여성의 언어교육, 이주민의 한국사회의 정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육아프로그램,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이들 프로그램의 사례로서 청주기적의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기반의 책을 매개로 한 사회적 육아’, 김해도서관의 ‘동화구연프로그램’, 파주시 도서관의 ‘다문화가정 한글 및 우리문화체험교실’, 대구두류도서관의 ‘다문화가정 자녀학습도우미’, 행신어린이도서관의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자녀독서지도교실’ 등이 있다.

셋째, 다문화사회에서 자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타국의 문화도 소중히 여기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데 목표를 둔 문화 및 체험프로그램이 있다. 사례로는 전남 남평도서관의 '원어민과 함께 하는 외국문화 체험', 남양주 진건도서관의 '옛이야기를 통한 우리문화 체험반', 삼척평생교육정보관의 '다문화가정여성 - 한국바로알기' 등이 있다.

넷째, 도서관에서는 지역 내 다문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조사를 철저히 한 연후에 타 기관과 연계하여 다문화 서비스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중복된 서비스로 인한 예산 낭비, 인력 낭비는 물론 도서관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서비스의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한 연계 및 혼합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 사례로 청주기적의 도서관에서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와 연계해서 실시하는 '세계로 가는 도서관', 대구서부제일종합사회복지관 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 대구서부시립도서관의 연계로 이루어지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북스타트', 군청 주민복지과 및 각 읍면자치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가평군립도서관의 '사랑의 한올타리' 등이 있다.

다섯째, 특정 인구집단을 통해 전파되는 문화적 가치나 삶의 양식에 대해 토착민 집단이 어떻게 관계맺음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다문화사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연구에 따르면 이주민과의 접촉이나 친분관계를 통해 부정적 고정관념이 낮아지므로 상대집단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킴으로써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내국인에 대한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의 사례로는 부평기

적의 도서관에서 하는 '책놀이 프로그램', 김민정의 연구에서 소개된 독서를 통한 다문화이해 교육, 이주민과 내국인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독서치료프로그램 등이 있다.

5.2 제언

우리사회는 이제 배제, 동화를 넘어 다문화 '공존'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이제 다문화사회 정책은 여러 문화권부터 유입된 이주민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가운데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이주한 나라의 문화를 수용하고 사회 시스템에 적응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면서 새로운 사회의 활력과 창조적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사회적 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에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는 이주민들의 정착 프로그램의 기본 인프라로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물론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인식되어야 한다. 도서관은 선진 다문화 사회의 보편적 도서관 서비스 체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특수한 다문화 현상을 파악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자체적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부 도서관들의 선도적인 노력으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 상태이다. 그런 만큼 아직은 유네스코의 정신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되기에는 우리나라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수준이 여러 측면에서 미비하다. 이에 따라 우선 기본 인프라부터 구축이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프

로그램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 단계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다문화가정 유형별로 그에 맞는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고, 학교이탈 현상이 심각한 외국인 근로자 가정과 새터민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도서관의 교육적 서비스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프로그램의 적극적 대상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와 여성이주민으로 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 가정과 새터민가정은 원칙적으로는 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으로 하되, 적극적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외국인근로자가정과 새터민가정에 대한 도서관에서의 다문화서비스는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새터민가정은 우선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만큼 심각한 언어적인 문제가 없고, 또 실제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복한 책을 구하거나 소장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탈북주민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정치적 또는 행정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 외국인근로자가정도 영구정착이라기보다는 일정기간 머무는 경우가 많아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 대상에서 제외하였지만 이들에 대

한 도서관서비스의 문제는 대상그룹의 특성을 고려해서 별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이와 함께 영구정착을 목적으로 한 이주민들 중 이주기간이 5년 이상 되고 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도 구분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주 초기에는 한국어교육을 필요로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 부모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도서관 서비스 욕구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는 자기개발을 할 수 있고,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자녀들의 학교수업과 자발적 학습을 도와주고, 사회적응과 정체성 확립을 도와줄 수 있는 평생교육 차원의 서비스로 다각적인 관점에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예산의 낭비를 막고, 업무와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위해 타 다문화지원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관련 기관 종사자 혹은 이주민, 내국인에게조차 도서관이 다문화 서비스 기관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다문화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에서는 지역의 다문화가정지원 기관을 조사하고 이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다문화 서비스 혜택이 이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주어지도록 노력해야겠지만, 각 기관별 행사나 교육을 실시할 때 타기관의 협조를 얻어 도서관 이용이나 프로그램 등을 소개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정례화 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도서관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현황에서 살펴본
 았듯이 다문화 서비스 인력·예산·자료·시설 등 모든 자원이 미비한 가운데 다문화담당 사서의 업무과다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다문화 서비스 인력으로 사서의 확충, 사서 재교육, 강사교육, 이주민의 활용, 자원활동가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 서비스를 위해 자료개발과 장서구축을 위한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다문화 자료는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는 이주민의 국적을 조사하여 이들 국가의 언어를 대상으로 이중언어(한국어와 이주민의 모국어)로 자료가 개발되어야 하고, 의사소통 증진을 위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고른 발달을 위한 시청각 및 동영상 등 다매체 자료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복본 구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의 접근점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해야 한다. 이주민의 도서관 방문이나 도서관의 다문화가정 방문서비스를 위하여 교통지원시스템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별 단위 도서관에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지만 이를 위한 인프라 조성은 단위도서관에서 구축하기 역부족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도서관들이 연합하여 다문화 서비스를 위한 개발팀(task force)을 구성하여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장서개발, 지역 협력 프로그램개발,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정보서비스 개발 등을 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 자료의 분류와 목록시스템 개발이나 디지털 콘텐츠 개발은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국가 단위 도서관에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2]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2006.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서울: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 [3] 김갑성. 2006.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4] 김갑현.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지역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 [5] 김경아. 2007. 다문화가정 이주여성현황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한국거버넌스학회 2007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6] 김기봉. 2007. 다문화사회에서 한국인은 누구인가? - 민족정체성에서 공화국정체성으로-. 『제3회 경기다문화교육 포럼 및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문학적 성찰과 다문화교육 현장실천 사례』, 9-16. 2007년 11월 23일. 경기: 경기대학교.
- [7] 김남국. 2008. 유럽에서 다문화의 도전과 대응.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콜로키움 자료집: 한

- 국사회의 다민족국가로의 이행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와 정책적 대응』, 1-13. 2008년 6월 12일.
부산: 부산대학교.
- [8] 김미숙. 2005.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KP2005-06.
- [9] 김민정. 2007.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통합 독서토론논술 프로그램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 [10] 김순필. 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한 학교도서관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
- [11] 김영란. 2006.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관련 정책. 『아시아여성연구』, 5(1): 143-189.
- [12] 김해성. 2008. 이주민의 문화적 환경과 개선방안. 『다문화포럼』, 2008년 2월 22일.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13] 문화관광부 다문화정책팀 2008. 다문화정책 추진방향과 과제.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콜로키움 자료집: 한국사회의 다민족국가로의 이행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와 정책적 대응』, 14-22. 2008. 6. 12. 부산: 부산대학교.
- [14] 박성연. 2001. 『그림책을 활용한 타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인종 및 타문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유아학과.
- [15] 박윤경. 2006. 민족 및 인종 편견 감소를 위한 초등 다문화교육: 아동문학을 활용한 간접접촉. 『초등사회과교육』, 18(2): 27-45.
- [16] 박지희. 2002. 『다문화 반영도서를 통한 토의활동이 인종에 대한 유아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17] 박채복. 2008. 한국이주자 사회통합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동북아논총』, 46: 253-274.
- [18] 법무부. 2007. 『2007년도 출입국통계연보』. 서울: 법무부.
- [19] 부평기적의도서관. 2007. 『그림책으로 세계친구와 만나요』. 부평: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20] 서일민. 2008. 이야기를 통한 어린이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제2회 국제심포지엄자료집』, 2008. 6. 경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21] 설동훈. 2003.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운동, 1993-2003: 이주노동자의 저항의 기록. 『2003년 한국 사회학회/한국문화인류학회 공동 심포지움: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338-350. 2003년 9월 19-20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22] 설동훈.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 정책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23] 송경순. 2002. 『그림책을 통한 반편견 교육활동이 유아의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 완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대학원.
- [24] 임기연. 2008. 『어린이책을 활용한 초등 다문화 교육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사회교육.

- [25] 여성가족부. 2007.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안』. 서울: 여성가족부.
- [26] 이성언, 최유. 2006. 다문화가정 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 [27] 조상호. 2003.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정착센터 프로그램 개발』.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28]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29] 조용완. 2008. 국내도서관의 다문화자료 입수를 위한 효과적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3): 429-456.
- [30]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2007. 『다문화가족백서』. 평택: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 [31] 한진상. 2007.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실태연구 - 코시안의 집 아동들을 중심으로 -.”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문학적 성찰과 다문화교육 현장실천사례. 『제3회 경기도 문화교육포럼 및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91-106. 2007.11.23. 서울: 경기대학교.
- [32] 한윤옥. 2008a. 『독서교육과 자료의 활용』.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33] 한윤옥. 2008b.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34] 한윤옥, 조미아, 김수경. 2009.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43(1): 135-160.
- [35] 홍기원. 2008. 내국인 대상 다문화 인식개선의 필요성과 그 방안. 『다문화포럼』, 2008년 2월 22일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36] Cox, Rira et al., 1989. *Multicultural Programming*. Ottawa: Canadian Library Association.
- [37] Gill, Philip. 2002.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IFLA/UNESCO 가이드라인. 장혜란 역.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7. *2007nyeondo Damunhwa Gajeong Janyeo Gyoyuk Jiwon Gyeheo*. Seoul: Ministry of Education&Human Resources Development.
- [2] Presidential Committee on Social Inclusion. 2006. *Yeoseong Gyeolhoniminja Gajokui Sahoe Tonghap Jiwon*. Seoul: Presidential Committee on Social Inclusion.
- [3] Kap-Sung Kim. 2006. *A Study on the realities of child education in a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Graduate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4] Gab-Hyun Kim. 2007. *A Study on The education programme helping immigrant females*

-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s : focusing on life-long education programme of public libraries and life-long learning institutions in Chonnam province, republic of Korea*. Graduate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5] Kyoung A Kim, 2007. "Damunhwa Gajeong Iju Nyeoseong Hyunwanggwa Hangukui Damunhwa Jeongchaek." *Hanguk Geobeoneonseu Hakhoe 2007nyeon Chugye Haksul Daehoe Nonmunjip*
- [6] Gi-Bong Kim, 2007. "Damunhwa Sahoeseo Hangukineun Nuguinga? -Minjok Jeongcheseongeseo Gonghwaguk Jeongcheseongeuro-." 『Je 3hoe Gyonggi Damunhwa Gyoyuk forum mit Gyonggi Daehakkyo Inmungwahakyeonguso ChuGyehaksuldaehoe Jaryojip: Damunhwa Sahoereul Wihan Inmunhakjeok Seongchalgwa Damunhwa Gyoyuk Hyeonjang Silcheon Sarye』, 9-16. 2007. 11. 23. [Gyonggi: Gyonggi University].
- [7] Nam-Kook Kim, 2008. "Yureopeseo Damunhwai Dojeongwa Daeung." 『Pusan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Scial Science Research Colloquium Jaryojip: HangukSahoewi Daminjokgukgaroui Ihaengegwanhan Sahoegwahakjeok Yeonguwa Jeongchaekjeok Daeung』, 1-13. 2008. June 12. [Pusan: Pusan National University].
- [8] Misook Kim, 2005. *Bukhanitalhaksaeungi Hakgyojeokeung siltae mit Jiwonhangan*.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P 2005-06.
- [9] Minjung Kim, 2007. *A Study of a Unified Reading and Writing Program for the purposes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Graduate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10] Soon-Feel Kim, 2008. *The Roles of the school libraries in the education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Graduate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11] Younglan Kim, 2006. "Women-Immigrants' Lives and their Social-cultural Accommodation-related Policy for the Multi-cultural Society." *Journal of Asian Women*, 45(1) : 143-189.
- [12] Hae-Seong Kim, 2008. Ijuminui Munhwajeok hwangyeonggwa Gaeseonbangan. 『Damunhwaforum』, 2008. February 22. [Seoul: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 [13]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Damunhwajeongchaektim, 2008. "Damunhwajeongchaek Chujinbanghanggwa Gwaje." 『Pusan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Scial Science Research Colloquium Jaryojip: HangukSahoewi Daminjokgukgaroui Ihaengegwanhan Sahoegwahakjeok Yeonguwa Jeongchaekjeok Daeung』, 14-22. 2008. June 12. [Pusan: Pusan National University].
- [14] Sung-yun Park, 2001. *The effect of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using picture books on young children's attitudes toward race and culture*. Graduate thesis, Sungkyunkwan

- University.
- [15] Yun-Kyoung Park. 2006. "Multicultural education for reducing national and racial prejudice using children literature." *Elementary Social Studies*, 18(2): 27-45.
- [16] Ji-Hee Park. 2002. *Influence of discussion activity after reading multicultural children's books on the Attitude of children about Race*. Graduate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 [17] Chae-Bok Park. 2008. "The Direction for a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Immigrants in Korea and the Tasks Ahead." *Hangukdongbukanonchong*, 46: 253-274.
- [18] Ministry of Justice Republic of Korea. 2007. *2007nyeondo Chulipguk Tonggye Yeonbo*. Seoul: Ministry of Justice Republic of Korea.
- [19] Bupyeonggijeokuidoseogwan, 2007. *Geurimchaekuro Segyechinguwa Mannayo*. Seoul: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 Young Adults.
- [20] Il-Min Suh. 2008. "Iyagireul Tonghan Eorinidoseogwan Damunhwa Service." 『Je 2hoe Gukjesymposium Jaryojip』, 2008. June. Gyeongju: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 Young Adults.
- [21] Dong-Hoon Seol. 2003. "Hangukui oegukin Nodongja undong, 1993-2003: Ijunodongjaui Jeohangui Girok." 『2003nyeon Korea Sociological Association/Korean Society for cultural Anthropology Gongdong symposium: Hangukui Sosuja, Siltaewa Jeonmang』, 338-350. 2003, September 19-20.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22] Dong-Hoon Seol. 2005. *Gukjegyeolhon Ijyeseong Siltaejosa mit Jiwon Jeongchaekbangan*. Seoul: Presidential Committee on Social Inclusion. 11-1460000-002610-01.
- [23] Kyoung-Soon Song. 2002. *The effects of anti-bias activities through the picture books on reducing children's racial stereotypes*. Graduate thesis, Paichai University.
- [24] Gi-Yeon Lim. 2008.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using Children's Books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 focusing on the changes in children's attitudes to family diversity-*. Graduate thesis,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25] Ministry of Gender Equality. 2007. *Je 3cha Yeoseongjeongchaek Gibongyeheokan*.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26] Sung-Eon Lee and Yu Choi. 2006. *Research on Legislative Support for Multi-Culture Family*. Seoul: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27] Sang-Ho Cho. 2003. *Bukhanitaljumin Jiwon Jiyeokjengchaksenter program Gaebal*.
- [28] Young-Dal Cho. 2006. *Damunhwagajeongui Janyeo Gyoyuk Siltae Josa*.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29] Yong-Wan Cho. 2008. "Effective Ways for Acquiring Multicultural Materials in Korea."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3): 429-456.
- [30] Pyeongtaek University Multicultural Family Center. 2007. Damunhwagajokbaekseo.
- [31] Jin-Sang Han. 2007. "Damunhwagajeong Aideului Hakseupgwon Chimhae Siltaeyeongu - Kosianui Jip adongdeuleul Jungsimeuro-." 『Je 3hoe Gyonggi Damunhwa Gyoyuk forum mit Gyonggi Daehakkyo Inmungwahakyeonguso ChuGyehaksuldaehoe Jaryojip: Damunhwa Sahoereul Wihan Inmunhakjeok Seongchalgwa Damunhwa Gyoyuk Hyeonjang Silcheon Sarye』, 91-106. 2007. November 23. [Gyonggi: Gyonggi University].
- [32] Yoon-Ok Han. 2008a. *DokseoGyoyukgwa Jaryoui Hwalyong*.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33] Yoon-Ok Han. 2008b. *Doseogwanui Damunhwaservice Gaebale Gwanhan Yeongu: Damunhwagajeongui Janyeoreul wihan Doseogwan Programeul Jungsimsa*. Seoul: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 Young Adults.
- [34] Yoon-Ok Han, Mi-Ah Cho, & Soo-Kyoung Kim. 2009. "A Study on the Current States and Proble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1): 135-160.
- [35] Ki-won Hong. 2008. "Naegukin Daesang Damunhwa Insikgaeseonui Pilyoseonggeu Bangan." 『Damunhwaforum』, 2008. February 22. [Seoul: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 [37] Gill, Philip. 2002. *The Public library service : IFLA/UNESCO guidelines for development*. translated by Hye Rhan Chang.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